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 14 년 02 월	201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정은아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정은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Attachment Stability
: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2014 년 02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정 은 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택 호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02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정 은 아

정은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조교수 정 승 아 ㉠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김 택 호 ㉠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권 해 수 ㉠

2014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
그 립 목 차	II
ABSTRACT	III

감사의 글	1
I. 서 론	3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B. 연구문제	10
II. 이론적 배경	11
A. 애착이론	11
1. 애착	11
2. 애착의 유형	12
3. 애착의 발달과정	13
B. 결혼만족도	14
1. 결혼만족도의 개념	14
2.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	15
C. 심리적 안녕감	16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16
2. 결혼만족도와 심리적안녕감	19
3. 심리적 안녕감과 애착안정성	20

III. 연구 방법	22
A. 연구 대상	22
B. 측정 도구	23
1. 결혼만족도 척도	23
2. 심리적 안녕감 척도	23
3. 애착안정성 척도	24
C. 연구 절차	25
D. 자료 분석	25
IV. 연구 결과	28
A. 연구 대상	28
1.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애착안정성의 기술 통계치 ...	28
B.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애착안정성의 관계	28
C.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 애착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29
D.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	31
1. 연구모형 검증	31
1) 정규성 검증	31
2)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모형 비교	34
3) 최종 구조모델의 경로분석	35
4) 최종모형의 총효과 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36
V. 결론 및 논의	38
A. 결과 요약 및 논의	38

B.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39
VI. 참고문헌	41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22
<표 2> 결혼만족도 척도의 문항구성	23
<표 3>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문항구성	24
<표 4> 애착안정성의 문항구성	25
<표 5>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표차	28
<표 6>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애착안정성의 상관관계 분석	29
<표 7>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30
<표 8> Sobel 검증 결과	31
<표 9> 정규성 분포 결과	32
<표 10> 연구모형의 적합도	33
<표 11> 모형간의 적합도 차이검증	34
<표 12> 최종구조모델의 경로 분석	36
<표 13> 변인들 간의 직접·간접 효과	36

그림 목 차

<그림 1>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형	27
<그림 2>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33
<그림 3> 부분 매개모형	35
<그림 4> 완전 매개모형	35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s Attachment Stability :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Jeong Eun-ah

Supervised by Prof. Kim Taek-ho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This study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s attachment stability. For this, it targeted 200 mothers who have children at Western age from 3 to 6 who are attending child care center where is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t prepared the questionnaire, which is composed of marital satisfaction scal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 and attachment stability scale, by sending it to home, and carried out it with a method of collecting again through child care cent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8.0 and AMOS 20.0.

Summarizing the results that were clarified in this study, the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each of variabl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ttachment stabilit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is implies that there is high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attachment stability, and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ttachment stability.

Seco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was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child's attachment stability and was shown to have influence even upon psychological well-being. Also,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child's attachment stability.

Thir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indicated to have mediating effect in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attachment stability.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a structural model, the psychological well-being was indicated to have mediating effect in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s attachment stability. This supported the outcome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lso, as a result of comparatively analyzing betwee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which is the proposed model, and the perfect mediation model, which is the competing model, the partial mediation model was adopted. Thu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was indicated to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 in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s attachment stability.

This study confirme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in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s attachment stability. Thus, it clarified that mother's making happy and satisfactory marital life and the environment available for feeling satisfaction with the whole life are conducive to increasing child's attachment stability. In addition, it clarified new variable dubbed psychological well-being, which has the mediating function in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attachment stability. Hence, there is its significance in having expanded the scope of research related to attachment stability.

Key word: marital satisfaction, attachment stability, psychological wellbeing

감사의 글

세상의 큰 희망이 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를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매 순간 제가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상담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써 성장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과정 속에서 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버지처럼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말로 무사히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택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자이지만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언제나 든든함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늘 책임감있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논문을 읽어주시며 더욱 완성도 높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권해수 교수님, 정승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며 넉넉지 않은 상황에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든든한 격려와 지원 덕분에 무사히 논문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조금 더 챙기시길 바라며 저도 더불어 부모님의 힘이 되어드리는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할텐데도 밤늦게까지 코딩 작업을 도와주었던 언니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협력해주신 배숙경 센터장님과 박지영, 김효진, 유나, 윤정민 치료사 선생님과 고재희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셨던 김지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정을 나누며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함께 진학하여 동고동락한 대학원 동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밤을 지새우고 우여곡절을 함께 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던 동기 하인진, 천사같은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윤은지, 논문에 대한 고충을 함께 나누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었던 손은경, 김선영, 이은아, 임주희, 모상미, 신보람 언니에게 감사합니다. 논문을 작성하

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음에 벅찬 마음이 듭니다. 모두의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쳐있던 제게 힘이 되어주시고 늘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조일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무사히 논문 작성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더욱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었던 나의 오랜 친구 정가인, 김경률 오빠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소망하는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상담심리학과로의 진학에 도움을 주신 오창훈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었으며 과거에 비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더욱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제가 무사히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논문 작성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자세로 더욱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책임감있는 자세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심리학의 길로 들어설 때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던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를 위하여 더욱 더 학문에 정진하고 자기계발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2014년 2월 정은아 드림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시도가 많아졌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와 더불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원인 탐색을 위한 다양한 시도 중에서도, 어머니와 아동의 애착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애착이론과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대한 관심 또한 함께 높아지게 되었다. Bowlby(1969)의 이론이 발표된 이래로 애착의 개념과 중요성은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동기의 사회·정서 및 인지발달과 자아개념의 발달을 설명하는 다양한 영역의 연구에 적용되었다.

Bowlby(1969)에 의하면 애착은 아동과 부모사이에 형성되는 긍정적인 정서관계로 아동이 태어나서 자신을 돌보는 주 양육자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애착은 아동이 가지는 사회적 적응력이나 문제해결력, 자기 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성격을 형성하고 발달과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 내에서 주 양육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은 유아기 초기에 형성될 뿐만 아니라(노명희, 1995) 이러한 애착을 토대로 자신이 속한 세계의 본질과 특성, 그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그리고 자아를 구성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정미, 2005).

Bowlby(1969)의 애착이론을 토대로 Ainsworth는 아동과 어머니 사이의 애착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낯선 상황 실험을 고안하였으며, 이 실험을 통해 애착의 유형을 크게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2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데(장규영, 2004), 이것은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며 동시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정서적으로 타인과 잘 조율하며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가능하고 새로운 타인과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형성된 안정 애착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대인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과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믿음과 신념은 아동으로 하여금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장휘숙, 1997; 정옥남, 2000).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행동, 민감성과 같은 요인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내적통제성이 높게 나타나며,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교우관계가 가장 원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변의 일들에 큰 역할을 한다고 지각하게 되어 자존감이 증대되고 여러 면에서 원만한 발달을 보이게 되므로 내적통제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반면,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을 구속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그 결과 자녀는 자기 주변의 일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보게 되어 책임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내적통제성을 발달시키기 어렵다고 하였다(노윤란, 2013). 또한 임귀성(1999)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 간에는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가 애정적,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행동이 긍정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순옥(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의 자기효능감 신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기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이 성격을 형성하고 이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양육행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Rey와 Plapp(1990)는 어머니의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야기되는 애착의 문제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 뿐만 아니라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도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아동의 또래 관계 능력과 연결되는 사회적 능력 역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이정미, 2005). 즉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안정감의 형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또래에 의한 선호도나 대인적응성도 더 높은 점수를 받

왔다(Raphael et al., 2004).

어머니의 민감성은 주요 변인들 중에서도 아동의 애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초기 애착이론가들(Bowlby, 1969; Ainsworth et al., 1978)은 아동과 양육자간에 형성하는 애착의 질은 아동의 신호에 대해 양육자의 민감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으며, 어머니의 민감성은 부모-아동간의 애착의 결과 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자 아동의 애착안정성을 가장 잘 예언해주는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박은희, 2008; 재인용). 부모의 민감성은 아동의 사회적 반응성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관계의 기초를 제공한다. 영유아기 때의 민감한 부모양육은 자녀의 행동 조절 능력의 발달에 기초를 제공하고(Kopp, 198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Chase-Lansdale, Wakschlag & Brooks-Gunn, 1996). 반면에 어머니로부터 민감하지 못한 양육을 받으면 응시 철회, 웅크리기 등 어머니에 대해 회피 반응을 보인다(Bornstein, 1992; 서동미, 2009; 재인용).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 및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를 신속히 읽어내고 적절히 반응하여 영아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을 때 긍정적 사회정서 및 인지적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였다(Kivijarvi, 2001; NICHD ECCRN, 2000; 재인용).

한편, 김은실(2007)의 연구에서 이러한 민감성은 애착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민감성에는 결혼만족도나 주위의 도움 정도, 심리적 우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서 애착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밝혀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행복, 만족과 기쁨의 주관적 감정으로 결혼생활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배우자 관계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된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렌탈(Lenthall, 1977)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란 ‘개인의 기대와 결혼 사이의 비교’라고 정의 하였고, 루이스와 스페니어(Lewis & Spanier, 1979)는 ‘한 사람이 가지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그가 실제 받는 보상의 일치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고정애(2004)에 따르면 이러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관적 측면은 같은 조건과 환경을 놓고도 자신의 내면적 태도로 인해 만족과 불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적 측면으로는 배우자의 태도, 환경의 문제 등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결혼 만족도로 볼 수 있다(정승혜, 1988; 이상열, 2013). 이러한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의사소통, 긍정적 감정, 경제적 요인, 성만족도,

자녀 양육 등의 요소들을 거론해왔다. 공성숙(2006)은 부부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자신의 긍정적 감정인 것으로 밝혀냈고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갈등 해결이나 의사소통 보다 부부의 긍정적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재경(1991)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은 부부갈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며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잠재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며 결정적 요인 또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경옥, 김영희(2003)의 연구에서는 성(sexuality)은 현대사회에서 부부결속력을 높이고 신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혼 만족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며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과거의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의 동향은 위와 같이 주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가를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만족도와 심리정서적 특성을 연결짓는 연구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결혼만족도를 통하여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애착과 관련한 어머니 변인의 하나로써 결혼만족도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Goldberg와 Easterbrooks(1984)는 회피 애착이나 저항애착 아동의 부모들은 더 낮은 결혼적응과 배우자간의 정서적 공유를 보고하였다. 정윤희(2008)의 연구에서도 모의 결혼만족도와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할 때 거부적 양육태도가 적게 함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애착안정성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적게 할수록 자녀의 애착안정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Cox, Owen, Lewis, Henderson(1989)은 결혼관계의 질이 어머니의 민감성, 온정을 포함하는 초기양육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권유리, 1996: 재인용). 이러한 민감성과 온정은 아동이 어머니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결혼 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가 긍정적일 수록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 긍정적 양육태도를 증가시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혼만족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애착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내는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애착안정성과 관련한 중요 특성으로 다뤄졌던 민감성, 양육행동,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되며 이 모든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배우자의 지

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일관된 보고가 나타났으며(박희경, 윤갑정, 2012), 이를 통하여 남편의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낮은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이게 되어 아동과 애착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지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변인으로써 결혼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반면(Kim, 2011), 남편에게 애정을 덜 느끼는 부인일수록 자녀를 꾸짖고 야단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Yang, 2000). 이러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일상스트레스와 관련되며(Lee & Lee, 2000) 스트레스가 양육에 있어 남편의 이해와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Park & Kim, 1995)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남편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희경, 윤갑정(2012), 조윤주와 한준아(2012)은 이러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하며 특히 결혼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예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금숙(2000)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유리(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배우자의 사랑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행복감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숙정, 오계림(2010)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은 상관이 있으며 결혼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낄수록 어머니가 삶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과 애착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독립심을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행동을 제공하고(전영주, 2010; Belsky, 1984),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설명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촉진 역할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김은진, 2009; 오소영, 2011), 부정적 정서성을 가진 어머니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므로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며(Belsky & Pensky, 1988; Colletta, 1983; 전영주, 2010), 학령기 아동에게 강압적이고 비일관적인 훈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McCarty, Yang, Lahey, & Kropp, 1984; Forehand, Lautenschlager, Faust & Graziano, 1985; 전영주, 2010).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심리적 태도나 자세와 관련되고, 이는 또한 건강한 자녀의 발달과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태도나 자세는 어머니의 행복감과도 연관되는데 김민정(200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행복감 수준은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행복감은 즉, 심리적 안녕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기쁘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 된다(Diener, 2000; 오소영, 2011).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고 있다(well-functioning)는 것을 의미한다(조선숙, 2012). 또한 안정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한 개인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며 타인과의 생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전영주, 2010). 반면,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송아람, 2005; 전영주, 2010). 또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대해 걱정하며 타인의 결정에 의존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뚜렷한 삶의 목표가 부재하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며, 삶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한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정서적 안녕감, 사회적 경쟁성, 독립심을 양성시키기에 필요한 긍정적 역할행동이 제공된다고 하였다(Belsky, 1984; 오소영, 2011). 또한 전영주(2010)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행동 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김지현(2010)은 어머니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진연화(2009)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결정하는 심리적 상태 즉, 심리적 안녕감이 민감성과 더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의 안정 애착 형성 여부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내·외적 문제행동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Roger et al., 2001),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한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일생 동안 그의 독특한 행동방식이나, 사고방식, 성격 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 대해 점차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만족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민감성,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애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유추

해 보았을 때 이러한 민감성, 양육태도, 양육행동, 결혼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은실(2007)의 연구에서도 기존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와 아동 애착 관련 연구에서 민감성을 매개로 한 연구는 많지만, 심리적인 상태나 안녕감을 매개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어머니의 민감성, 양육태도, 양육경험,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등을 아동의 사회·정서적 특성과의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어 온 것과 비교해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의 결혼만족과 애착안정성의 관계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아동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냄으로써 불안정한 애착 형성으로 인한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다는 점과 어머니의 아동 간 불안정 애착 형성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현재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들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변인으로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상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애착안정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1>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A. 애착이론

1. 애착

애착은 Bowlby(1958)에 의해 아동과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된 개념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형성하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에 대한 내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내적인 인상은 이후 애착에 관련된 정보나 사건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적인 인상을 전문적 용어로 내적자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 한다. 또한, Hazan과 Shaver는 유아기 동안에 확립된 애착 양식이 내적자동모형을 통해 지속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특징적인 대인관계의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Ainsworth(1973)는 애착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자신과 특정한 개체 사이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이고, 이러한 유대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속된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Harlow와 Zimmerman(1959)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대리모 실험을 통하여 애착 발달의 주요인이 정신분석이론가나 학습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유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접촉 위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유사한 과정을 관찰한 초기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반응의 민감성과 신속성, 어머니와 아기의 접촉 양이 애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Schaffer & Emerson, 1964).

애착 요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민감성이다. Ainsworth(1973)에 의하면 민감성이란, 어머니가 아동에게 보내는 신호를 일관되게 지각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며, 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아동의 욕구에 대해 민감하고, 상호작용을 잘 형성하며, 많은 자극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면 아동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발달됨에 따라 아동은 자신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형성시키게 되며, 애착 대상인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유용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러한 믿음은 또래관계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형성하도록 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애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유아는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빨고 깨물고 입에 가져가 넣으려는 구순적인 존재이므로 자신에게 젖과 음식을 주어 구순적 만족을 주는 사랑을 좋아하고 이를 통해 애착을 형성한다고 본다. 이와 비슷하게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도 유아의 수유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유아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 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한다고 본다. 반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유아의 애착은 조건형성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보는데 즉, 유아에게 1차적 욕구인 수유, 기저귀 갈기, 안아주기, 이야기 해 주기 등이 애착 형성에 조건 자극이 되므로 애착이 학습된다고 본다. 한편 Bowlby에 의해 체계화된 생태학적 이론에서의 애착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며 모든 동물에게 동일한 것으로 애착은 이미 타고난 내재적 특성이며 타인과 접촉을 유지하고 보살펴주고 싶게 만드는 여러 생득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윤소연(1993)에 의하면 애착대상이 생애초기에 유용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했다면 아동은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 지지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이후의 삶에 있어서 정신병리의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이처럼 유아기 및 아동기에 수립된 애착체계는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애착이론은 오랫동안 대인관계 및 성격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주목받아 오고 있다.

2. 애착의 유형

애착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근본적으로 어머니와 안전하게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생애 초기에 어머니가 아동의 욕구에 얼마나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발달된다고 본다. 즉, 애착은 아동과 어머니 두 사람 간의 안전감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친밀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를 말하며, 유아가 특정 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라고 정의된다.(장휘숙, 1997; Bowlby, 1988).

애착이론에서 애착유형은 아동과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형성된 애착 유형은 어머니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또래관계와 사회로 확장되며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에 대한 내적 인상을 형성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내적 인상을 전문적 용어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갖게 될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Bowlby, 1969, 1973). Hazan과 Shaver(1987) 또한, 유아기 동안에 확립된 애착 양식이 내적작동모형을 통해 지속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특징적인 대인관계의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Bowlby는 아동기 이후의 애착관계는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내적작동모델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 사건에 대해 갖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대상과 자아의 애착과 관련된 행동, 사고, 느낌을 조절, 해석, 예견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애착대상의 일관되고 적절한 양육 태도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과 애착대상에 대해 안정적 실행 모델을 가지므로, 자신이 가치있다는 신념을 가지며, 자신을 비롯한 외부 세상 및 타인에 대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타인과 잘 조율하며,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가능한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여 불안정 실행 모델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이 가치없다고 느끼며, 자신을 비롯한 외부 세상과 타인에게도 불신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타인에게 수용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등 부정적인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며 이후의 성장 과정과 성격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애착안정성의 구분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r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양애경(2006)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애착안정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3. 애착의 발달과정

Bowlby(1969)에 의하면, 애착은 4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생후 8~12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동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12주가 지나면서 시작되는데, 이시기에는 특정 대상에게 애착을 갖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이 대상은 어머니이다. 세 번째 단계는 6개월부터 대개 두 살까지로 보는데, 이시기에는 애착을 지닌 대상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세 살이 지나면서 시작되는데 이전 단계보다 훨씬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이

와같이 생애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애착은 아동이 독립적 존재로 성숙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초기적인 단계이다. 또한 애착의 주관적이고 경험적 측면으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 사건에 대해 갖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대상과 자아의 애착 관련 행동, 사고, 느낌을 조절, 해석, 예견하는 것을 돕는다. 따라서 애착을 통해 내적작동모델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아동이 자신과 세상을 비롯한 타인을 지각하고 관계를 맺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B. 결혼만족도

1. 결혼만족도의 개념

결혼만족도란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 욕구가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는 정도를 말하며, 부부간의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이 보이는 실제 수행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결혼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행복, 만족과 기쁨의 주관적 감정으로 이는 일종의 태도로써 부부를 비롯한 가족 간 애정은 물론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및 자녀의 출산과 순조로운 성장 및 사회적인 성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의 적응도, 행복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결혼의 질은 결혼 만족, 행복, 역할 갈등, 안전성, 소통, 적응, 성 생활 등의 결혼생활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배우자 관계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된다. 결혼만족이란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부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부부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부의 태도를 의미한다. 결혼만족도란 정의와 개념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렌탈(Lenthall, 1977)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의 결과 사이의 비교’라고 정의 하였으며 루이스와 스페니어(Lewis & Spanier, 1979)는 ‘한 사람이 가지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그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일치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이상열, 2013).

고정애(2004)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긍정적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이다. 이러한 결혼 만족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관적 측면은 같은 조

건과 환경을 놓고도 자신의 내면적 태도로 인해 만족과 불만을 느끼는 것을 의미 하며 객관적인 측면으로는 배우자의 태도, 환경의 문제 등 외부적 요인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결혼 만족도로 볼 수 있다(정승혜, 1988; 이상열, 2013). 이와 같은 특성들을 미루어 보아 결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의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 보상과의 일치 정도에 대한 일치도가 높다는 것 혹은 개인이 지각하는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즐거움, 만족, 긍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2.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

결혼만족도의 관련 변인들은 매우 다양한데 주로 의사소통, 긍정적 감정, 경제적 요인, 성 만족도, 자녀 양육 등의 요소들이 그동안 거론되어 왔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갈등해결 방식이 부부만족과 원만한 부부관계유지의 핵심이며,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Nolier & Fitzpatrick, 1990). 또 다른 변인으로는 긍정적 감정이 있는데 공성숙(2006)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자신의 긍정적 감정인 것으로 밝혀냈으며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갈등 해결이나 의사소통에 앞서서 부부의 긍정적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경제적 요인은 부부 갈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갈등의 잠재적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김재경, 1991). 한편 성(sexuality)은 현대사회에서 부부결속력을 높이고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혼만족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밝힌 연구 결과가 있다(이경옥, 김영희 2003; Hurlbert Apt & Rabehi, 1993; Marokoff & Gillhiand, 1993).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만족도를 주로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연령, 고부관계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관지어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특성들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결혼만족도와 심리정서적 특성을 연결짓는 연구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결혼만족도를 통하여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애착과 관련한 어머니 변인의 하나로써 결혼만족도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Goldberg와 Easterbrooks(1984)는 결혼의 질이 어머니, 아버지-아동 간의 애착의 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있음을 보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회피 애착이나 저항애착 아동의 부모들은 더 낮은 결혼적응과 배우자간의 정서적 공유를 보고하였다. 또한 Cox, Owen, Lewis, Henderson(1989)은 결혼관계의 질이 어머니의 민감성, 온정을 포함하는 초기양육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권유리, 1996: 재인용). 이러한 민감성과 온정은 아동이 어머니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결혼 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가 긍정적일 수록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Speche & Mckiney(1993)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보살핌, 성 행동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석지은, 2008), 권유리(1996)의 연구에서 결혼관계의 문제가 있는 애착장애아동 어머니는 애정표현을 통한 정서적 지지측면에서 정상아동 어머니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정윤희(2008)의 연구에서도 모의 결혼만족도와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할 때 거부적 양육태도가 적게 함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애착안정성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적게 할수록 자녀의 애착안정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되고 이로 인해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도 연결되어 결국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애착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 해준다.

C. 심리적 안녕감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일반적으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개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기쁘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된다(Diener, 1984).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이 있다. 먼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란 삶의 전반에 걸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감의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 사용하는 안녕감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 행복감을 강조하는 특정용어로 사용된다. 삶의 만족도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며 행복, 만족, 긍정적 정서, 사기 등의 개념을 포함한 주관적 안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관적 안녕이란 한 개인의 삶의 만족을 현재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하고(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 이러한 느낌은 행복의 양에 달려 있으며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복감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다. 이는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함과 같은 긍정적 정서이다(박숙경, 2002). 이러한 의미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써 현재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이 주로 쓰이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일상생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적응하는데서 느끼는 정서로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오소영, 2011).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총체적 감정으로서 주관적인 행복감,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Andrew & Robinson, 1991; 오소영, 2011에서 재인용).

그러나 Ryff(1989)는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yff(1989)는 Maslow의 자아실현,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 Jung의 개성화, Allport의 성숙, Eri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 Neugarten의 성격의 변화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매개 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것이 측정하는 삶의 질을 ‘심리적 안녕감’이라 하였다(전영주, 2010).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이론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주현숙, 2006).

1)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하위요인

① 자아수용(self-acceptance: SA)

자기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자아수용이라 하며, 이는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과거의 삶을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자아수용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며 괴로워 한다. 따라서 자아수용은 자신의 행동과 동기 그리고 감정을 적절하게 인지하는 것을 넘어선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심으로서 자긍심보다 더 장기적인 차원을 포함하여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는, 일종의 자기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Ryff, 1989).

②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PR)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지닐수록 타인에 대해 따뜻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공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 능력이 낮을수록 타인에 대해 신뢰를 갖기 어려워지며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구본용(1991)은 고독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떨어지고, 타인과의 만족도 역시 낮으며, 물질추구 경향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③ 자율성(Autonomy: AU)

자율성은 자기결정이고, 독립적인 특성으로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율성은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결정한다. 자율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며,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며 사회적 압력에 동조한다. Ryff(1989)는 자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단력, 독립성, 사회적 압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 내적 동기에 의한 자신의 행동의 조절, 개인적 기준에 의한 평가 등을 자율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④ 환경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EM)

환경통제력은 환경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감각으로서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외적 행동계획을 조절하는 능력이다(Ryff, 1989). 환경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고, 복잡한 외적 행동계획을 잘 조절하며 자신의 주변에 주어진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필요나 가치에 따라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변

화시킬 수 있다. 환경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주위환경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끼며 자신의 주변에 주어진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다.

⑤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PL)

삶의 목적은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목적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과거 삶과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여기며,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삶의 목적이 낮은 사람은 삶의 의미가 부족하다고 여기며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나 방향 감각이 거의 없다. 지나온 과거 삶의 의미를 차지 못하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의미를 부여할 신념이나 태도 또한 부족하다.

⑥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PG)

개인적 성장은 연속적인 발달을 통해 이루어지며 적응과 변화를 포함한 그 이상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인자, 1982). 개인적 성장이 높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이 발달하고 성장함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신에게 내재된 잠재력을 실현시키려 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이 성장해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 개인적 성장이 낮은 사람은 개인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여기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이 성장하거나 발전되어 감을 느끼지 못한다. 삶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고 자신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2. 결혼만족도와 심리적안녕감

기존의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부모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발달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부모 중에서도 특히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 양육자로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연령, 학력, 경제적 소득, 유아교육기관만족도, 취업여부, 직업만족도, 배우자의지지, 생활만족 등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정 소득, 취업 유무와 같은 인구학적 특징들의 영향력은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배우자의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일관된 보고가 나타났다(박희경,윤갑정, 2012). 이를 통하여 남편의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낮은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이게 되어 아동과 애착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지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변인으로써 결혼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반면(Kim, 2011), 남편에게 애정을 덜 느끼는 부인일수록 자녀를 꾸짖고 야단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Yang, 2000). 이러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일상스트레스와 관련되며(Lee & Lee, 2000) 스트레스가 양육에 있어 남편의 이해와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Park & Kim, 1995)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남편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희경, 윤갑정(2012)은 이러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하며 특히 결혼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예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조윤주와 한준아(2012)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로 나타났는데 특히 아내에게서는 결혼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조금숙(2000)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유리(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배우자의 사랑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행복감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숙정, 오재림(2010)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3. 심리적 안녕감과 애착안정성

심리적 안녕감이란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및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상태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질과 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보면 주관적 안녕감 즉, 심리적 안녕감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기존 애착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변인들인 양육 행동이나 양육 태도, 민감성 등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공통적으로 밝혀져왔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

라 어머니의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심리적 안녕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영옥, 김문혜(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이 행복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유아들 역시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며(김도란, 2008; 김민정, 2009: 재인용), 더불어 이러한 부모의 행복은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건강한 정신, 적극적인 대인관계, 높은 사회성숙도 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경순, 2004; 오세춘, 2003: 재인용).

김민정(200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높은 행복감 수준은 유아의 높은 또래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유아의 애착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부모의 행복감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아동을 대하는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애착을 형성하는 아동의 이후 사회·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민감성과 더불어 아동 애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애착이 형성되어지고, 성격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재 만 3세부터 만6세까지의 아동을 자녀를 둔 어머니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은 < 표 1 > 과 같다.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30대 중반 (34세 ~ 36세)이 68명으로 34.0%, 30대 후반(37세 ~ 39세)이 49명으로 24.5%, 40대 초반(40세 ~ 43세)이 43명으로 21.5%, 30대 초반(30세 ~ 33세)이 26명으로 13.0%, 20대 후반(27세 ~ 29세)이 8명으로 4.0%, 40대 후반(47세 ~ 49세)이 3명으로 1.5%, 40대 중반(44세 ~ 46세)이 2명으로 1.0%, 20대 중반(24세 ~ 26세)이 1명으로 0.5%를 차지하였다.

자녀의 수는 2명이 108명으로 54.0%, 1명이 52명으로 26.0%, 3명이 32명으로 16.0%, 4명이 8명으로 4.0%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130명으로 65.0%, 둘째가 52명으로 26.0%, 셋째가 15명으로 7.0%, 넷째가 3명으로 1.5%로 나타났다.

< 표 1 >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 = 200	
	구분	N(명)	%
연령	20대 중반 (24세~26세)	1	0.5
	20대 후반 (27세~29세)	8	4.0
	30대 초반 (30세~33세)	26	13.0
	30대 중반 (34세~36세)	68	34.0
	30대 후반 (37세~39세)	49	24.5
	40대 초반 (40세~43세)	43	21.5
	40대 중반 (44세~46세)	2	1.0
	40대 후반 (47세~49세)	3	1.5
	자녀의 수	1명	52
2명		108	54.0
3명		32	16.0
4명		8	4.0
출생순위	첫째	130	65.0
	둘째	52	26.0
	셋째	15	7.5
	넷째	3	1.5

B.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심리적안녕감, 모-아동 간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3가지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Roach, Frazier와 Bowden이 개발한 결혼만족도 척도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MSS)를 Bowden(1977)이 타당도 연구를 통해 48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다시 유은희와 박성연(1991)이 번안하여 간략형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이 중 3문항이 역채점 문항이고(3, 10, 14번),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만족도가 높다. 본 연구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95 이다.

<표 2> 결혼만족도 척도의 문항구성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결혼만족도	전반적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부부의	6, 8, 11, 12, 15, 17	6
	사회심리적동질감 부부관계의	1, 2, 4, 5, 7, 9	6
	갈등 및 불만요인 부부관계의	*3, *10	2
	합리적 태도	13, *14, 16	3
	전체		17

* 표시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2.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tt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54문항을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문항분석을 통해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 등의 6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46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46문항 중 22

문항이 역채점 문항이고(2, 4, 6, 7, 9, 11, 12, 16, 18, 20, 21, 22, 23, 26, 27, 33, 34, 36, 40, 41, 45, 46번),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이며 총점의 범위는 46점에서 2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3 >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문항구성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자아수용(SA)	3, 8, *12, 19, 24, *26, 39, 42	8	
긍정적 대인관계(PR)	*4, *9, 13, *20, *27, 38, *46	7	
자율성(AU)	5, 10, 15, *21, 29, *33, *36, 43	8	
심리적안녕감	환경 통제력(EM)	1, *6, 14, *16, 26, 30, *40, 44	8
	삶의 목적(PL)	*7, *11, *18, *23, 28, 32, 35	7
	개인적 성장(PG)	*2, 17, *22, 31, *34, 37, *41, *45	8
	전체	46	

* 표시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3. 모-아동간의 애착안정성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애착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Armsden과 Greengerg(1987)가 개발한 IPPA(Inventoty of Parent and Per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양애경(2006)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대상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 되었으며, 애착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적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애착 안정성은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5문항, 신뢰감 6문항, 소외감 4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9 이다.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시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는 요인으로 ‘나는 우리 아이의 기분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와 같은 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신뢰감 척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고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믿음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나는 우리 아이의 판단을 믿어준다’와 같은 문항이다. 소외감 척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관심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지 못하여 소외와 좌절의 정도를 보는 것으로 ‘집에 있을 때 우리 아이는 나 때문에 쉽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다’와 같은 문항으로 되어 있다.

< 표 4 > 애착안정성의 문항구성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측정계수가 높을수록 나타내는 특성	
애착	의사소통	5	1, 3, 5, 8, 11	부모와 아동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짐
안정성	신뢰감	6	2, 4, 7, *9, 12, 14	부모와 유아의 신뢰감이 높음
	소외감	4	*6, *10, *13, *15	부모와 유아간의 소외감이 높음

* 표시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C.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들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편에 설문지를 각 가정으로 보내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어린이집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013년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3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210부 중에 충실하게 응답하지 못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최종 200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D. 자료 분석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및 애착안정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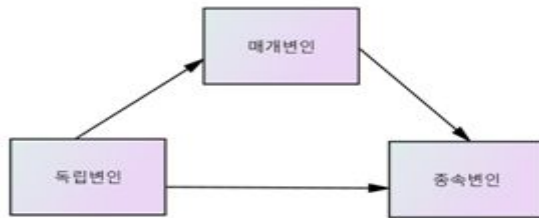
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4)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통제할 때 종속변인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독립변인의 영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되거나 유의하지만 영향이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독립변인인 결혼만족도가 종속변인인 애착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매개변인인 심리적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변인인 심리적안녕감이 종속변인인 애착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결혼만족도와 매개변인인 심리적안녕감을 회귀방정식에 함께 투입하였을 때, 애착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결혼만족도의 영향이 없어지거나 유의하게 감소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검증(1982)을 실시하였다.

넷째,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더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를 추정할 수 있고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홍세희, 2003)는 장점을 가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하위요인이 없는 결혼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임의로 요인의 수준을 나누어 할당하였다. 그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두 단계 검증방식에 따라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결혼만족도, 심리적안녕감, 애착안정성의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합도에 따라 측정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였다. 측정변인 간의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가 정상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으며,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값을 각각 절대값 2와 4를 기준으로 가정 삼았다(Hong, Malik & Lee, 2003). 모형검증을 위한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기준으로는 χ^2 을 이용한 모형 평가와, 적합도 지수로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다른 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론적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와 최악의 모형에 비해 이론적 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상대적 적합도가 있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는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등이 있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는 NFI(Nomed Fit Index), , AMOS 결과에서 TLI(Tucker-Lewis Index)로 나타나는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이 있다(홍세희, 2000).

결과를 제시할 때 절대적 적합도 지수는 하나 이상,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두 개 이상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Holy & Panter, 1995)하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홍세희(2000)가 만족스러운 적합도 지수로 제안하고 있는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그림 1>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형

IV. 연구 결과

A. 기술통계결과

1.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애착안정성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결혼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애착안정성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기술통계치는 <표 4>와 같다.

<표 5>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00)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결혼만족도	62.65	11.92	85	21
심리적안녕감	146.13	8.53	170	115
자아수용	24.77	2.46	31	17
긍정적 대인관계	24.38	3.09	33	15
자율성	24.96	2.41	33	17
환경 통제력	26.43	2.91	33	16
삶의 목적	22.43	2.04	29	18
개인적 성장	24.67	2.46	34	18
애착안정성	45.53	4.39	57	36
의사소통	15.47	1.65	20	11
신뢰감	17.27	1.93	22	12
소외감	12.79	1.58	16	9

B.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애착안정성의 관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애착안정성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변인들 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6>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애착안정성의 상관관계 분석

(N=200)			
변인	1	2	3
1. 결혼만족도			
2. 심리적 안녕감	.54**		
3. 애착 안정성	.49**	.46**	

* $p < .05$, ** $p < .01$

<표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애착안정성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p < .01$). 애착안정성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49, p < .01$), 결혼만족도와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r = .54, p < .01$).

C.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 애착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앞서서 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가 애착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종속변인인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애착안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매개변인인 심리적안녕감이 종속변인인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애착안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애착안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심리적안녕감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N=200)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결혼만족도	애착안정성	.18	.02	.49	7.83	.24	61.27***
2단계 결혼만족도	심리적안녕감	.39	.04	.54	9.05***	.30	81.83***
3단계 심리적안녕감	애착안정성	.24	.03	.46	7.22***	.21	52.12***
4단계 결혼만족도	애착안정성	.12	.03	.34	4.74***	.29	40.10***
심리적안녕감		.14	.04	.27	3.83***		

* $p < .05$, ** $p < .01$, *** $p < .0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종속변인인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beta = .49$,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매개변인인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54$, $p < .0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이 종속변인인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beta = .46$, $p < .001$). 그리고 4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이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 .27$, $p < .00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의 방정식($\beta = .49$)보다 4단계의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34$). 이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애착안정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23.6%이었으며, 결혼만

족도와 심리적안녕감을 독립변인으로, 애착안정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28.9%로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검증 결과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Sobel, 1982).

본 연구에서의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베타 계수의 감소가 유의미함을 나타냈고 결혼만족도가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부분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Z=5.58, p<.001$).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안녕감이 다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표 8> Sobel 검증 결과

A(SEa)	B(SEb)	Z
.39(.04)	.24(.03)	5.58***

*** $p<.001$.

D.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

1. 연구모형 검증

1) 정규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애착안정성에 대한 측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최대 우도법(MLE)을 활용한 구조방정식을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검증하였으며,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AMOS 20.0 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다변량 정규성은 각 측정변인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여 정규분

포의 가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왜도와 첨도가 약간이라도 다변량 정규성을 위배할 경우 통계적으로 정규성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보다는 절대값의 크기로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변수의 왜도가 절대값 2미만, 첨도가 절대값 4미만일 경우,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한다(Hong, Malik & Lee, 2003).

<표 9> 정규성 분포결과

		N = 200	
	구분	왜도	첨도
결혼만족도	전반적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부부의	-.649	.914
	사회심리적동질감 부부관계의	-.831	1.010
	갈등 및 불만요인 부부관계의	-.365	-.174
	합리적 태도	-.527	.758
	자아수용	-.209	.379
심리적안녕감	긍정적 대인관계	-.158	.022
	자율성	.096	.967
	환경통제력	-.390	.652
	삶의목적	.194	.531
	개인적성장	.039	.568
애착안정성	의사소통	.362	.152
	신뢰감	.364	-.071
	소외감	.141	-.339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에 대한 왜도와 첨도는 각각 2와 4미만의 절대값을 보임으로써 정규성을 충족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연구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값(χ^2)외에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진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TLI, CFI는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의미한다(홍세희, 1999).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는 <그림 2>과 <표 10>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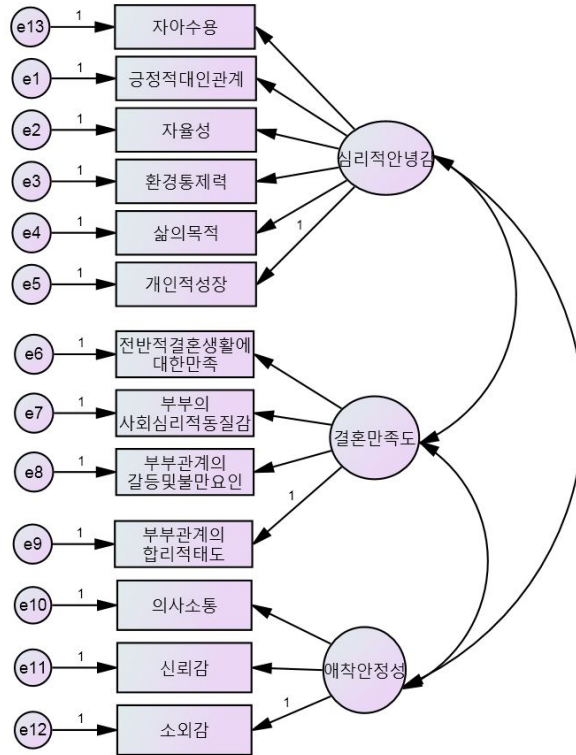


그림2.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표 10>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171.24	62	.90	.88	.09

카이자승값(χ^2)을 이용한 적합도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 또한 크다. 본 연구에서는 카이자승값(χ^2)이 171.23으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카이자승값(χ^2)이외에 적합도 지수를 이용한 모형 평가에서는 CFI 값이 .90이상이므로 측정 모형이 적합하였고 RMSEA의 값은 .10보다 작게 나타나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TLI의 값은 .884로 .90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명할 수 있다.

2)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모형 비교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의 원인이 되는 변인이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이면에 숨어있는 인과적 구조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매개변인을 가정하는 매개 모형은 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제3의 변인 즉 매개변인(Mediating variable)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이 있다(홍세희, 2005). 부분 매개모형은 매개변인이 추가된 모형에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면서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의 독립변인 효과보다 작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관계와 매개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 완전 매개모형은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0에 가까우며 따라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은 <그림 3>, <그림 4> 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결혼만족도를 예언변인, 애착안정성을 결과변인, 심리적안녕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결혼만족도에서 심리적안녕감으로 가는 경로, 심리적안녕감에서 애착안정성으로 가는 경로, 결혼만족도에서 애착안정성으로 가는 경로를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한 다음 제안모형(심리적 안녕감 부분매개 모형)과 대안모형(심리적 안녕감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와 차이검증을 이용해 모형 비교를 하였다. 두 모형간 적합도와 차이검증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모형간의 적합도 차이검증

N = 200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제안모형 (부분매개모형)	171.24	62	.000	.90	.88	.09
대안모형 (완전매개모형)	176.17	63	.000	.90	.88	.09
χ^2 차이검증	$\Delta\chi^2 = \chi^2_B - \chi^2_A = 4.93(\Delta=1)$					

카이자승(χ^2)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부분매개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1). <표 11>을 보면 두 모형의 χ^2 차이 값은 4.93이며, 자유도의 차이값은 1로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제안모델인 부분매개 모형은 대안모델에 비해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으나 χ^2 의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만큼 충분히 감소했으므로 대안모델인 완전매개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심리적 안녕감은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χ^2 값은 적합도 지수들 중에서 모형을 자료에 적용시켰을 때 그 모형이 얼마나 현실자료에 ‘부합하지 않는가’를 나타내며, 그 값이 작을수록 그 모형은 자료에 일치하고 좋은 모형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 보다 부분매개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따라서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결혼만족도가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간접영향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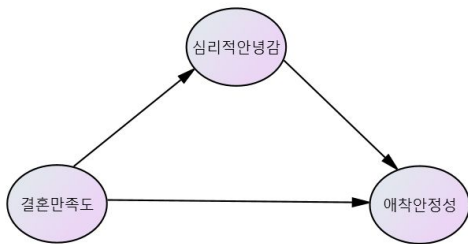


그림3. 부분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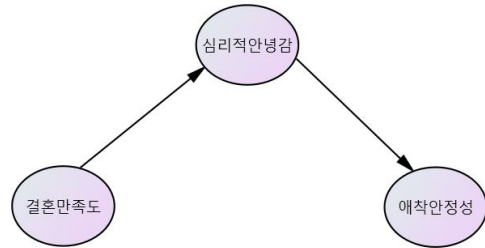


그림4. 완전 매개모형

3) 최종 구조모델의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 매개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경로 a와 경로b가 유의미한지, 그리고 매개효과 ab가 유의미한지 부분매개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a,b가 유의미하고 ab가 유의미하면 심리적 안녕감은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으므로 매개모형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택 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형에서 설정한 3개의 경로계수 가운데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의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 a, b, c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2>의

표준화 추정치를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beta=.70$)는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에서 애착안정성으로 가는 경로($\beta=.42$)는 $\alpha=.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결혼만족도에서 애착안정성으로 가는 경로($\beta=.27$)로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지지되었고 가설1 또한 지지되었다.

<표 12> 최종구조모델의 경로 분석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 (SE)	C.R
결혼만족도 → 심리적안녕감(a)	.45	.69	.08	5.98***
심리적안녕감 → 애착안정성(b)	.40	.42	.13	3.06**
결혼 만족도 → 애착안정성(c)	.17	.27	.07	2.38*

* $p<.05$, ** $p<.01$, *** $p<.001$.

4) 최종모형의 총효과 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애착안정성 간의 관계에 심리적 안녕감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애착안정성 간의 직접·간접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3> 과 같다.

<표 13> 변인들 간의 직접·간접 효과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결혼만족도 → 심리적안녕감	.45(.69)	.00(.00)	.45(.70)
심리적안녕감 → 애착안정성	.40(.42)	.00(.00)	.40(.42)
결혼만족도 → 애착안정성	.17(.27)	.18(.29)	.35(.56)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

변인들 간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만족도는 심리적안녕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으며(.69), 심리적안녕감은 애착안정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2). 한편 결혼만족도는 애착안정성에 정적인 직접효과와(.27) 정적인

간접효과(.29)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애착안정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부분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논의

A.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애착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결혼만족도가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3세에서 만6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회수된 210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200부를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상관분석, 중다 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0.0 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애착안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와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 또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는 애착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착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와 애착안정성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주위의 도움이나 부부관계로 비롯되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어머니가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결국 아동의 애착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은실, 2007; Bowlby, 1980; Huth-Bcoks et al., 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애착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애착안정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애착안정성을 증가시킨다.

B.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3세에서 만6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기존 애착관련 연구에서 이미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져왔던 민감성이라는 변인을 제외하고 이혼률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들이 부부 관계 및 결혼 전반적으로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함을 느끼는 가를 나타내는 변인인 결혼만족도라는 변인을 제시함으로써 애착안정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애착과 관련하여 조금씩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적고, 기존의 연구에서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상태,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이 여러번 다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이 결혼만족도와 아동 애착안정성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또 하나의 변인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가 애착안정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결혼만족도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 작용을 하는 새로운 변인을 밝혀냄으로써 애착안정성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동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어머니의 민감성,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 등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과도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밝혀진 바를 토대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심리적안녕감을 매개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가 부부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결혼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 또한 심리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양육태도를 하도록 기여함으로써 결국에는 아동의 애착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동의 애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남편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삶의 만족함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주관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광주광역시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4세~만7세 아동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과의 애착안정성을 어머니와 아동을 동시에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이 애착안정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 다소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만 4세 ~ 만7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대상의 범위가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역시 영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 대상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애착 연구에 있어 현재까지 개발된 애착을 측정하는 연구 도구가 실제 조사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다 간단하게 아동과 어머니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 참고 문헌

- 강규영 (2004).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정애 (2004). 기혼 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관련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성숙 (2006). 일반 부부와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Vol. 15. No. 4. pp. 434-445.
- 권유리 (1996).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의 어머니와 정상아동 어머니의 성격특성, 결혼관계, 사회적지지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희 (2006). 희망과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란 (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Vol. 13, No. 6, pp.311-333.
- 김미숙 (2009).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9).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 (2007). 애착의 세대 전이 유형별 관련 요인 비교 분석: 세대 간 전이되지 않은 애착 유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실 (2007).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 어머니의 민감성과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 간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진 (2009).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인: 아동의 성,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경 (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1999). 애착안정성과 자기지각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2007). 상담자 애착유형과 심리적 불편감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적 자각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 애착과 삶의 만족도가 애정적-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10).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 (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윤란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내적통제성과 교우관계의 관련성.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2004). 맞벌이 부부 영.유아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희 (2008). 어머니의 민감성 향상을 위한 모-아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영아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경, 윤갑정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자녀 관계와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Vol. 33, No. 2, pp712-715.
- 서동미 (2009). 모-아간 상호증진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유아 애착안정성 및 어머니 민감성에 관한 연구: 효과 검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지은 (2008). 애착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심리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금분 (2011).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모자간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아람 (2005).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태도의 관계가 유아의 심리적 상

- 태에 미치는 영향. 동적 가족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정문자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혜정 (2003).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엄경순 (2004). 농촌과 도시 청소년의 개인·가족·사회자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성경 (2011).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세춘 (2003).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고등학교 학생의 무기력 증후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소영, 이한우 (2011).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자녀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연구. 심리행동연구. Vol. 3, No. 1, pp.63-79.
- 왕혜옥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효진 (2011).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자희 (2004). 어머니의 애착유형 및 부부의 갈등해결방식과 자녀의 애착 유형.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윤수진 (2002).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애착유형.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소연 (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 김영희(2003). 기혼여성의 성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Vol. 41. No.7. pp. 39-58.
- 이미선 (2008). 불안장애 아동의 애착 유형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의 관계: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와 성인 애착 면점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수 (2010).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반응양식과 애착안정성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열 (2013). 부부갈등과 성적 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정, 오재림 (2010).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유효성, 직장 및 가정생활 갈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아시아여성연구*. Vol. 49-1, pp. 7-40.
- 이영주 (1998). 장애아동 어머니와 정상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2005). 불안/우울 및 위축 아동의 애착유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신, 최영희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Vol. 13, No. 1, 19-32.
- 이주현 (2010). 내담아동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부모상담의 작업 동맹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 (2006). 어머니 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Vol. 46, No. 2. pp. 97-111.
- 임귀성 (1999).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성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 박정희 (2009). 어머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유아 간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 Vol. 17, No. 2, pp.213-232.
- 장휘숙 (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 발달학회 인간 발달연구*, 4(1).
- 전영주 (2010).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행동문제의 관계: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효정 (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매커니즘: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 연구*. Vol. 8, No. 3, pp. 159-174.
- 정성훈, 진미경, 정운선, 임효덕 (2006). 영아-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Vol. 13, No. 3, pp. 21-37.
- 정승혜 (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남 (2000). 자폐성 아동과 부모의 애착행동발달을 위한 중재 전략. **정서·행동 장애연구**. Vol.16, No.2. 113-146.
- 정윤희 (2008). 부모의 아동기 애착과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애착안정성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의사소통방식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금숙 (2000). 연령 및 취업유무에 따른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구조적 특성, 결혼만족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금숙, 조증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 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Vol. 9, No. 3, 27-41.
- 조윤주, 한준아, 김지현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Vol. 32, No. 2, pp. 33-60.
- 주현숙 (2006).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연화 (2009).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미영 (2011). 유아의 애착유형과 관련된 어머니 관련 변인 분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석우 (2011).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돌봄 자기효능감과 어머니의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Vol. 16, No. 2, pp.145-161.
- 한영옥, 김문혜 (2002).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횡문화적 고찰. **아동학회지**. Vol. 24, No. 1, pp.47-59.
- 한지현, 이영환 (2003).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 10, No. 2, pp.119-149.
- 한태숙 (2008).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정서성, 부부갈등 및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R. M. Caldwell & H. N. Ricciuti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21-94).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M. D., Bleher, M. C., Waters, E., & Wi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Pinsky E. (1988).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133-156.
- Bornstein, M., & Tamis-Lemonda, C. (1992). Maternal responsiveness to infants in three societies: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Child Development*, 63(4), 808-811.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Psycho-Analyse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Chase-Lansdale, Wakschlag & Brooks-Gunn. (1996). Not Just "Ghosts in the Nursery": Contemporaneou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Parenting in Young African-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Vol.67. No.5. pp 2131-2147.
- Colletta, N. D. (1983). At risk for depression: A study of young moth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2, 301-310.
- Conger, R. McCarty, J., Yang, R., Lahey, B., & Kropp, J.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2234-2247.
- Cox,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 K. (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Vol.60, pp 1015-1024.
- Diener, E. (198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Forehand, R., Lautenschlager, G., Faust, J., & Graziano, W. (1985). Parent perceptions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ve mood.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14, 1-3.
- Goldberg, W. & Easterbrooks. (1984). The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Hazan, C.,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511-524.
- Hurlbert, D. F., Apt, C., & Rabehi, S. M. (1993). Key variables to understanding female sexual satisfaction: An examination of women in non distressed marriage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2(2), 134-165.
- Kim, H. S. (2011).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Expressiveness, Marital 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Style of Preschool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2), 299-310.
- Kopp, C.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ivijarvi, M., Oeten, J. Raiha, H., Kaljonen, A., Tamminen, T., & Piha, J.(2001). Maternal Sensitivity Behavior and Infant Behavior in Early Interac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5), 627-640.
- Lee, J. E., & Lee, Y. H. (2000). The Relation between Assertiveness, Aggressiveness, Daily Hassles,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531-548.
- Lenthall, G. (1977).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Counselling*. 3, 25-32.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I., & Reiss, I.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ew York : Free Press.

- Marokoff, P., & Gilliland, R. (1993).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0, 43-53.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The relation of child care to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4), 960-980.
- Park, S. O. & Kim, J. H. (1995). Balancing work and family lives of working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13-25.
- Raphaelle, M., Blaise, P., Inge, B., & Oliver, H. (200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and child attachment representation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3), 305-325.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oach, A. J., Frazier, L. P.,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537-54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precher, S. & Mikiney, k. (1993). *Sexualit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Yang, K. H. (2000).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rearing stress of mother of the autistic children and non-autistic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부 록

부 록 I. 결혼 만족도 척도

부 록 II.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부 록 III. 애착 안정성 척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지는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동 간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고 그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질문에 응답하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오직 학문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시는 어머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택호

연구자: 정은아

◆ 다음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배경 정보입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칸에 표시(V) 하시거나 글이나 숫자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 ()세

2. 자녀의 수: ()명

*** 본 질문지는 귀하의 자녀들 만4세에서 만6세까지의 아동 1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질문지입니다.**

3.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 ()년 ()월 ()일 / 만()세

4. 대상 자녀의 출생 순위: ()남 ()녀 중 ()째

<부 록 I> 결혼 만족도 척도

1. 다음은 어머니의 결혼 생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과 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					
2	나는 남편과 자주 즐거운 대화를 갖는다.					
3	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4	남편은 내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5	나는 남편과 사이가 좋다.					
6	나의 결혼생활은 결혼 전에 세웠던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7	남편은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다.					
8	나는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9	남편과 나의 애정 표현은 서로에게 만족스럽다.					
10	불만스러운 성 관계가 나의 결혼생활에 장애가 된다.					
11	나는 결혼생활이 기대했던 것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12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 보다도 나에게 만족감을 많이 준다.					
13	나는 남편과 즐거운 마음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14	남편은 나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 부족하다.					
15	지금까지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다.					
16	남편은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준다.					
17	나의 결혼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부 록 II>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2. 아래의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현재의 내 활동반경(생활영역)을 넓힐 생각이 없다.					
3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4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5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6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힘들다.					
7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8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9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10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11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다.					
12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13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염려하는 편이다.					

14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15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16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7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18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19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은 많지 않다.					
20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					
21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22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23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24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문제나 돈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25	과거에 내 스스로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돌아켜보면 그것이 시간 낭비였던 것이다.					
26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실망을 느낀다.					
27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같다.					
28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 하는 것을 즐긴다.					

29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30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제때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31	그 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 한다.					
32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33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34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못한다.					
35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36	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37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38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39	내 친구들은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41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42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에 버렸다.					
43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44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내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45	내 가정과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꾸려 올 수 있었다.					
46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 록 III> 애착 안정성 척도

3. 다음은 어머니와 아동간의 애착안정도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소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정도를 솔직하게 해당란에 표시(V)하여 주십시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아이의 기분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2	나는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3	우리 아이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모와 상담을 한다.				
4	우리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려고 한다.				
5	나는 아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부모로서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다.				
6	자신이 문제에 관해 부모와 이야기 할 때 우리 아이는 자신을 바보 같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다.				
7	나는 우리 아이의 판단을 믿어준다.				
8	나는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9	우리 아이는 나에게 화가 나 있을 때가 있다.				
10	나는 아이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11	아이에게 걱정거리나 어려움에 대해 자주 물어본다.				
12	우리 아이는 부모를 믿고 잘 따른다.				
13	나는 우리 아이가 요즘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14	나는 우리 아이를 내 의도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15	집에 있을 때 우리 아이는 나 때문에 쉽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다.				